

2019년도 표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사 30:23)

NEW
순복음Life
제38호

발행일 : 2019. 6.16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뒤돌아 생각해보니
음악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 어느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을 때가 없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달의 간증>

-백송이 청년-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밀알 청년회 백송이 청년입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듯 저는 4월에 교생실습을 마쳤습니다. 교생실습을 하고 난 후, 제가 먼저 간증을 쓰고 싶다고 말씀드려 쓰게 되었지만, 막상 글을 쓰려니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의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한없이 부끄럽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도해주신 것을 깨달은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생실습에 대한 설레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동생 장미와 함께 성전 밭기를 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좋은 담당 선생님과 반 학생들을 만나길 바라는 것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갖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생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제목과 두고 매일 밤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정말 감사하게도 조금은 무뚝뚝하시지만 좋으신 담당 선생님과 말썽꾸러기 같은 귀엽고 예쁜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명의 학생 그리고 교장·교감 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 앞에서 수업을 하는 연구수업도 아예 떨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구요.^^ 조금만 떨고 조금만 긴장한 상태에서 담대하게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연구수업이 끝난 후 교감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께도 칭찬과 호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던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랬던 저의 모습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교사가 되어서도 더욱이 기도해야 할 제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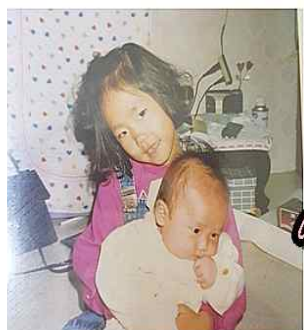
간략하게 저의 교생실습 기간의 과정을 이야기해 봤는데,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 드시나요?^^ 저는 하나님
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으
로 바라봤을 땐 부족한 점도 많고 두려움에 떨던 저의 모습은 사라
지고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인해 한 달간의 교생실습을 은혜
가운데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
음을 고백합니다. 교생실습의 기간은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 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니 음악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 어
느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을 때가 없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내 뜻대로 되는 일
이 없다며 원망하고 남들과 비교하여 나 자신을 낮춰오며 교회를
멀리 해 오던 제 모습을 회개하고 신앙의 회복을 두고 꾸준히 기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 앞으로도 저를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합니다. 당
진순복음교회에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저는 서울에서 섬기는
남자친구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 악기연주로서 하나
님을 찬양하며 열심히 주일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더디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점차 회복되고 성장할 저의 신앙을 지켜봐 주
세요^^

마지막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다독여주시며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엄
마 그리고 전도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희 아니죠?



나한테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



<성도 알아가기>

-조은희 권찰-

1. 결혼 전 무슨 일을 하셨나요?

회계사무실 업무, 일반 사무보조 및 경리업무를 보았습니다.

2. 권찰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항상 어려운대요.

장점은 화를 내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단점은 우유부단함이에요. 결정을 잘 못하는 경향이 강해요.

정말 싫지 않으면요.

3. 남편 되시는 이진영 집사님과 어떻게 만나셨나요?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요?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솔직하고 한결 같은 모습을 보고 결정 했습니다.

4. 남편의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소개로 만나기 전 먼저 본적이 있는데 웃지 않으면 인상이 강해 보이 다보니 그 모습이 조금 오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5. 시어머니와 가까이에서 살고 계십니다. 권찰님은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효부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가요?

효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기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요구하다 보면 서로 어려워 질 수밖에 없지만 내려놓으면 서로가 불편할 일을 만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잘 하시니 제가 더 돋보이는 모양입니다.

6. 남편 이진영 집사님의 자랑을 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의 입을 통해 나온 말에는 책임을 다합니다. 또 성격이 매우 꼼꼼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가장 우선인 사람입니다.

7. 요즘도 보면 남편과 꿀 떨어지고 깨소금 볶는 중입니다. 어떻게 가정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계신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았던 둘이 만나 한 가정을 만들어가려면 맞춰 나가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가 해왔던 방법으로 끼워 맞추려면 서로 상처 받고 어렵지만 나와야 하는 방향이 다르지만 조금씩 배려하고 인정해주면서 맞춰 나가는 중입니다.

8. 지금 권철님은 열심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시지요? 결혼 전과 후에 어떻게 바뀌셨나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점점 성장 하면서 어렸을 때의 열심은 없어지고 흔히 말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배움이 많지 않았기에 때문에 어떤 행동과 말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잘못 인지도 모르고 살았었지요. 그러다 결혼을 하면서 우리 당진순복음교회로 신앙의 터전을 옮기고 말씀을 배우니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가는 중입니다.

9.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힘들었던 것이나 특별히 은혜로웠던 것은 무엇이 있으세요?

그 어떤 것보다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과 통성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정말 조용히 찬양하고 소리 없이 기도를 했거든요. 특별히 은혜 되었던 것은 교회를 옮기고 슬슬 적응해 가는 중에 여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 하는 것들이 생소하기도 하면서 은혜되며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10. 이전 교회와 우리 교회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지요? 어떻게 적응하셨나요?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남편 이진영 집사님을 통해 듣기는 했지만 막상 딱치니 어색하고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시간이 해결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색했던 박수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누군가 들을까 봐 걱정하며 속으로 하던 기도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니까요.

11. 지금 여러 가지 사역들을 묵묵하게 잘 감당 중이신데요. 여리고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 일하실 수 있는지요? 비결 말씀 해 주세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이고요.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이지요. 혼자라면 감당하기 버거운 것들도 많지만 모르거나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에 물어보면 알려주시고 함께 해결 해 주시기에 가능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구요~

12. 두 아이의 엄마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딸, 아들... 100점이네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고자 노력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려 하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고운 말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13. 나라에서는 체벌금지가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과히 때려도 죽지 않는다며 체벌과 훈육을 말씀하고 있지요. 권찰님의 생각은 어떠하세요?

상황에 따라 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해서 따라주면 서로 좋지만 나쁜 길로 빠져 있음에도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를 들겠습니다.

14. 권찰님은 흠잡을 곳 없는 좋은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흠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봐 주시는 분들이 좋게만 봐 주시니 부끄럽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 하시는대로 좋지 못한 부분은 버리고 좋은 성품으로 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당장 얼마 남지 않은 둘째 아이의 출산의 모든 과정(이 글을 쓸 때는 아직 아이를 낳기 전입니다)과 아이의 건강과 수술 후 몸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주희가 동생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16.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의 친구를 만나는 일이 많이 제한되지요?
아직 젊으신 권철님이라 친구가 보고 싶고 놀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당연히 놀고도 싶고 만나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일정 행사들이 주일에 많이 잡혀 가보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일년에 얼굴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어요. 몇 년 동안 못 만난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보고 싶고 놀고 싶은 때는 제가 할 일이 없어 한가로울 때더라구요. 교회 일로, 아이 돌보는 일로 일정이 바쁘다 보면 친구 생각 할 겨를이 없어요.

17.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소망이요. 초음파 상으로만 보았지 아직 보지 못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매우 궁금해요. 생각도 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빨리 만져보고 싶습니다.

18. 앞으로의 인생 설계를 해주세요.

우선은 두 아이의 부모로 온전한 신앙을 보여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 신앙인으로 올바르게 세워 질수 있게 노력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많이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 권철님에게 보물 1호, 2호, 3호는요?

식상하다고 하시겠지만 1호 하나님,
2호는 주님이 보내주신 선물 자녀들....
3호는 가족입니다.

1호가 뒤로 밀리는 일이 없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갑니다.
순위가 바뀌는 순간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거니까요

20. 영적 체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못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체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통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해오던 기도 중 간증을 통해 이야기한 배우자의 기도는 보셨을 거고요. 가족의 건강을 놓고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 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곳이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 주시고, 만약 다치더라도 그 상황에서 가장 조금만 다치게 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친정아버지를 통해 들어 주심을 보았습니다. 장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치료 받으시던 중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종합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큰 병원에 예약을 잡고 검진을 받았는데 정말 이지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신장 안쪽에 암이 초기에 발견되었고 대기 인원이 많아서 두 달을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아름아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불과 2주일 후 바로 수술을 하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기에 삶을 놓칠 위기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수술도 하지 않고 온전히 치유되셔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걸 보면 정말이지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릴레이

김순미 권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주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즉 아바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혈육의 아버지께서는 90세를 바라보시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생일을 일일이 챙겨 주시며 곁에서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실 만큼 충기가 있으시며 강건하십니다. 나의 아버지...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자 : 박순남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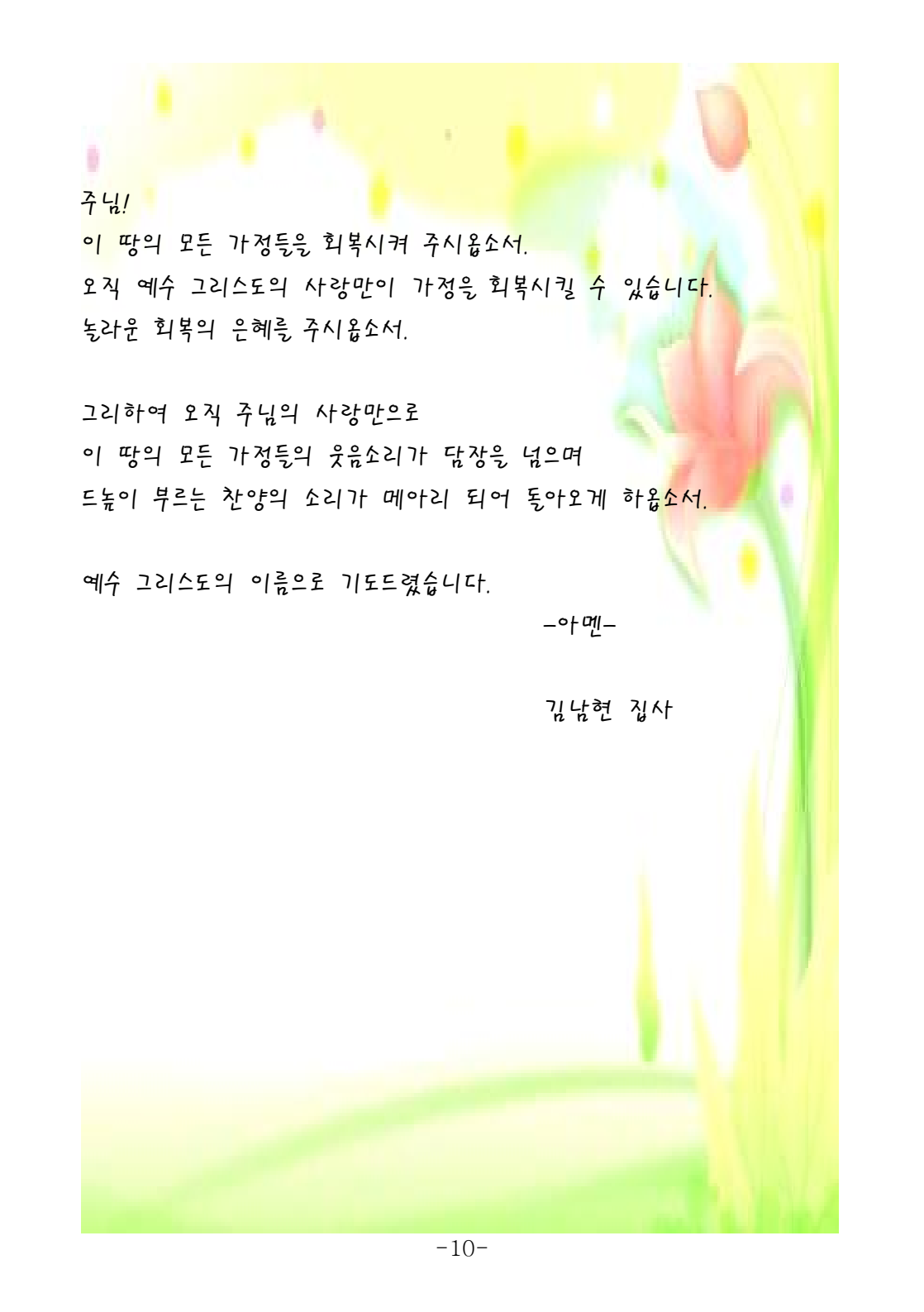
<기도문>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나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열매가 되어 맺혀질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오만하고 어리석음을
주님의 강하신 성령으로 치유하사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에
순종하지 않아 주님을 근심하시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은 고백하오니 무지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귀한 자녀 삼으셨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의 가정에 쏟아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가족 중 그 누구라도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화평이 깨어짐으로 고통스럽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에 가정들은 위기에 노출되며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사랑만으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으며

드높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메아리 되어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남현 집사

우리는 다니엘 유초등부

어느덧 여름이 성큼 우리 앞에 찾아 왔습니다. 이 무더위를 이기며 우리 친구들이 5월 한 달 동안 진행한 3부 순서를 알아볼까요??

첫째 주는 많은 성도님들의 손길로 진행 되어진 어린이 잔치가 있었습니다. 교육관 꾸미기와 음식 준비 등 많은 기관이 합심하여 준비 되어졌고, 아이들은 준비되어진 것들을 즐기는 시간이었는데요. 사진 찍기와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코너로 진행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식들도 많이 준비되어 즐겁고 기쁘게 먹고 즐기는 축복의 어린이 잔치였습니다.

둘째 주는 야외예배로 인해 따로 3부 순서는 없었지만 선생님들이 준비 해주신 카네이션 만들기와 레크레이션 및 보물찾기 등 아이들이 좋아 하는 코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 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부 남학생들은 어른들이 하는 축구에 함께 뛰지 못해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름 즐거운 시간으로 보낸 하루였습니다.



셋째 주는 입욕제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굳혀야 하는 시간이 있어 예배시간과 3분순서 시간을 바꾸어 진행했더니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 느낌이 난다며 새로워 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료를 조물조물 섞어 모양을 찍고, 그것을 말려서 친구들 귀가 길에 함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발 닦아드리고 사진찍기 미션을 진행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모님 발을 닦아드렸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행동에 감동받으시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갖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주는 프로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주는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를 했습니다. 미리 뽑아 준비한 종이에 색을 칠하고 연결해서 큰 지도를 만들고 지명을 찾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구들을 몇 가지 찾아 붙여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찾고 붙이며 지명을 공부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며 같이 공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과 6월 다니엘 유초등부는 LOVE(사랑)라는 주제로 2달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미 가정의달인 5월이 지나고 새로운 6월이 다가왔습니다. 5월에 나누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남은 6월 가족과 주변의 지인들 혹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전하기 어렵다면 기도로 지원해주는 것도 사랑의 한 표현 방법이 아닐까요??



성경 숨은그림찾기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11~13)
 [숨은그림: 낫, 런닝, 머그잔, 숟가락, 고래]

* 말씀의 편식

- essay.5 -



* 나더러 투여 투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어린이 축제
Ready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시간
좋은날씨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019년도
당진순복음교회
야외예배





**피로가 싹
풀려버려
선물 최고여**



**애건 으른이건
선물이면 다 좋아유**



**경품 최고
이 맛에
보물찾지**



**엄마들은
무적권 생활용품
아빠들은 무관심**



**애덜은
먹는게
최고여**



사랑에 빠지세요!

-최성일 청년-

조용조용하여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간간히 눈에 띄일 때는 거침없이 모든 성도들을 단번에 집중시키며 즐겁게 해 주는 청년이 있습니다. 잠시 중고등부를 보내며 방황하는 듯 보여 근심 한 적이 있었으나 염려는 기우였습니다. 청년부에 들어서면서 열심히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모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많은 변화를 보여준 최성일 청년입니다.



여기엔 엄마 김정임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지요! 좀처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수줍어하던 모습에서 자신감 넘치며 이제 과감하기까지 한 모습도 보여주는 당당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꼼꼼하게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기 좋으며 이것은 성일이에게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장래에 주님께서 일꾼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더욱 바르게 서리라 믿으며 기도를 보탭니다. 하나님께서 성일이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크게 이루어 나갈지 무척이나 기대되는 최성일 청년을 칭찬합니다.



성경 사각 퀴즈.(형제는 가로 자매는 세로) 1

(1)			(2)			(6)		(7)
			(3)	(4)				
		(25)		(5)			(8)	
(9)	(10)		(16)					
			(17)	(18)		(20)		
(11)				(19)			(21)	
	(12)		(14)					
(13)						(22)		(23)
		(15)			(24)			

가로 열쇠

- 1) 메시아를 번역하면.....(요 1: 41)
- 3)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쫓은 제자. (마 9:9)
- 5) ○○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
- 6) 닭이 울면 제일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눅22: 61 ~ 62)
- 8)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 의 표적 밖에는...
- 9)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이신 예수께 나아와
너희도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벧전 2: 4 ~ 5)

- 11)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는 사형에 해당함.(요 10:33)
- 12)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던 사람. (요 1: 45 ~)
- 13) ♪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에서 새같이... ♪
- 15) 가나안 정복후 이곳에 회막을 세웠죠. (수 18:1)
- 17) 찬양, 찬송, 그리고 ○○ .
- 19) 내가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 4)
- 22) ♪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 (요 9)
- 24) 니느웨로 가라했더니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로... (욥 1: 3)
- 25) 아담의 세째 아들.

세로 열쇠

- 1) 축복을 선포하는 산 (신 11: 29)
- 2) 의심 많은 제자.(요20:24~31)
- 4) ○○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창 1: 1)
- 7) 이세벨의 보복을 두려워한 엘리야가 낙망하여
이 나무 아래에 와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죠.(왕상 19: 1~)
- 10)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롬 11: 17)
- 14) “ ○○○야 나오라 ”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요 11:43~44)
- 16) 주님의 살과 피....
- 18) 다니엘의 세 친구 중 ‘메삭’의 히브리식 이름 (단 1: 7)
- 20)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겸 사사. 사무엘의 스승 (삼상 1)
- 21) 나는 바울에게, 나는 ○○○에게, 나는 게바에게.... (고전 1: 12)
- 22) 레아의 여종. ‘갓’과 ‘아셀’의 어머니. (창 30: 9~13)
- 23) 롯의 작은 딸이 아비와 동침하여 낳은 ‘벤암미’의 후손.(창 19: 38)

◆ 강광범(1910. 7.18~1950. 9.22) 목사

공산당에 대항하다 6.25와 더불어 반동분자로 몰려 순교 [순교자, 장로교 목사, 평안남도 강서 출생]

1. 신앙의 자유와 애국적 민족후진양육 결심
강 목사의 출생지 평안남도 강서는 강서학살사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내용인즉,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사건으로 전국이 일제히 분기하였던 때 이곳 강서에도 3월 2일 만세시위운동에 앞장서서 시위운동을 하던 옥천교회의 교인 중 6명이 일본 관헌에 체포되었다. 이 이튿날도 사건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원장교회 교인이 선두로 2천여명의 시위군중이 면사무소로 몰밀듯 밀려가서 옥천교회의 체포된 성도 6명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런, 일본 경찰과 헌병은 석방하기는커녕 체포된 윤관도, 현경묵 등의 6명을 위협 진압하려고 군중들 앞에서 총살하고 말았다. 이에 격분한 우리들은 치를 떨며 한 판 격투가 벌어졌다. 여기서 저희 총에 무차별 난사를 당하여 43명의 교인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하였고 부녀자와 참혹하게 총살되었던 사건이 강서학살사건이다. 이렇듯 총절의 고장 평남 강서군 덕흥리에서 1910년 7월 18일 강광범은 출생하였다.

이와 같이 충,열,효부,효자의 고장에서 신앙가정을 배경으로 착실히 배우고 보고들은 바를 열심히 몸으로 익히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상업계로 진출하여 이 나라 굴지의 대상인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공부하려고 진남포로 나가서 진남포상공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상공업 분야에 대하여 공부를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다. 신앙생활도 더욱 열심히 하였다.

2.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학공부

그러나 여기서 차차 생각이 세상적 물질로 축복을 받아 한국이 알아주는 새 상인이 되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민족의 스승이요, 복음의 대전조가 되어 민족의 가슴에도 신앙의 자유와 애국적 민족 후진 양육을 위해 헌신하리라는 생각으로 기울어져 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벌써 서른다섯 이라는 적잖은 나이였다. 여기서 더 주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평양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제41회로 졸업을 하던 해의 신학교는 이 나라 신학교육이 위기에 직면해 있던 때였다. 그것은 1935년부터 일제의 신사참배 때문이었다. 한국교회의 대세가 집중되어 있는 서북지방의 교세를 꺾어 일본의 전쟁수행에 동원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일제에 대한 저항의 최후 거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행된 신사참배 강요는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의 신사참배 가결 강요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총회 장소에 틈틈이 끼어 앉은 일본 경찰의 감시 아래 속수무책으로 진행되어 버렸다. 그런데 그 해 9월 20일부터 개강 예정이던 평양장로회신학교가 선교사들의 결의에 따라 무기 연기된다고 발표하였다. 폐쇄되고 만 셈이 되었다.

제 34회 졸업생은 우편으로 졸업증서를 집에 앉아서 받았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총회는 신학교 폐쇄를 방치하지 않고 이듬해인 1939년 3월에 신학교육부가 소집되어 신학교를 총회가 직영하기로 교섭하였으나, 캐나다 선교본부가 이 일에는 거부하였다. 총회는 장로회신학교 기성회를 조직하고 위원장 채필근 외에 이사 19명을 임명하고 신사참배를 전제한 변질된 신학교가 개교되었다.

이리하여, 1901년부터 시작하였던 장로교 범통의 신학교는 이미 1938년의 신사참배 가결과 더불어 종식을 고하고 말았다. 그 이후 신학교나 총회는 실제로 황민화 된 이질적 기독교요, 민족에서도 이단으로 기운 사이비 단체였다고 1935년부터 해방 전까지의 장로회 신학교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기독교 다음 세대를 절손할 수는 없었다. 강광범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고 또 그것은 거부되어야 옳은 일이었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런 그의 신학사상만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졸업을 하고 곧 목사가 되어 복음사역에 헌신하였다.

3. 공산당에 대항하다 6.25와 더불어 반동분자로 몰려 순교

이렇게 악몽같은 나날은 흘러 다시 있어서 안될 일제탄압이 종식을 고하는 날이 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저들의 패전이었고 이로써 민족에게는 해방의 날이 바로 그것이였다. 그러나 그 당시는 공산당들의 횡포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잔혹한 일제 뺨치는 갖가지의 핍박이 극심한 때에 목회를 하였다. 목사가 된 강광범은 평안 대동군 남곶면 군청 소재지가 있는 평양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대동강 하류에 대이도리 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였다. 여기서 저희 공산당의 주일선거며, 기독교도 연맹의 사이비 어용단체의 속화 만행을 보며 또 수난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에게 반동분자로 내몰리면서 지식인 숙청 등의 비행에 대하여 규탄하며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면서 교인들을 지도하고 교육하여 나갔다.

여기서 저들에게 낙인 찍혀 늘 알게 모르게 감시를 받으며 박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평남 중화군 중화면 성현리 성현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6.25를 당한다. 그 해 1950년 9월 23일 유엔군의 반격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소위 반동분자 지식인 숙청이라는 명목아래 체포되어 중화군 중화 경찰서에서 모진 매와 갖은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경찰 유치장에서 최후를 순교로 아름다운 생애를 마쳤다.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

5만 명 중 한명 꼴로 나타나는 선천성 대사효소결핍증(PKU:페닐케톤뇨증)을 앓고 있는 임승준씨.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는 당시 심정에 대해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숨만 붙어 있을 뿐 누워만 있는 아들.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병한 지 9년 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홉 살까지 꼼짝도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때부터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희귀병, 1년 치 약값만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집을 출려야 했습니다. 아이는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관에 수십 번 넘게 민원을 넣어 겨우 약에 붙는 세금을 낮추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승준씨는 한 기업의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독립해서 일을 하는 것이 가족과 승준씨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보이지 않을 뿐, 희망은 저 멀리에서 한 걸음씩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 불행이 아니다.

- 헬렌 켈러 -



시사용어 Briefing

메타도르 Matador

흑색선전이라는 뜻으로 투우사를 뜻하는 스페인어 ‘메타도르(Matador)’에서 유래했다.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를 중상모략하면서 내부를 교란하기 위한 흑색선전을 뜻하는 말이다.

해티브즘 Hacktivism

해킹(Hacking)과 행동주의(Activism)의 합성어. 정치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과 노선을 달리하는 정부가 기업, 단체 등의 인터넷 웹 사이트를 해킹하는 행위를 뜻한다. 기존 해킹이나 크랙킹과 달리 정치 사회적 저항 성격이 강하며 대표적인 해티브즘 조직으로는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있다.

투어리스트피케이션 Touristification

일반 주거 지역이 관광지로 변하면서 거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다가 결국 이주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 관광을 뜻하는 투어와 솟구치는 임대료에 원주민이 내몰리는 형상을 일컫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로 서울 종로구 가화동 북촌 한옥마을이나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이화동 가화마을이 대표적이다.

빌바오 효과 Bilbao Effect

문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을 뜻하는 말이며, 한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 등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을 지칭한다. 쇠퇴해 가던 스페인의 지방공업도시 빌바오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는 등 탈바꿈한 이후 경제적 부흥을 가져온 데서 비롯됐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연일 기사를 통해 5월29일 헝가리에서 일어난 유람선 침몰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탑승 인원 및 사망자 수와 실종자 수를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종자에서 사망자로 바뀌어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 33명이 탑승했고 7명이 생존했으며 나머지는 사망과 실종상태로 있는 상황이다.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발표한 것에 따르면 다른 유람선이 약속시간 보다 늦어 빨리 움직이면서 침몰한 배에 추월 교신을 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추월하며 생긴 사고였다. 그리고 사고 직후 떠났던 배가 침몰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보도가 나오며 뽕소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참혹한 기사를 보며 우리나라에서 몇 해 전 일어난 세월호 침몰 참사를 다시한번 떠올리며 사람들은 안타까움의 작은 비명소리를 한숨으로 내뿜고 있다.

그 배안에서 떨어져 구조를 기다리고 간절히 살기를 원했을 이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다. 사건 후 우리 정부에서도 잠수부와 정밀 검사자들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헝가리 정부와의 의견 차이로 아직 수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 수색과 인양작업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많은 이때에 우리는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하겠다. 현재 진행되어지는 수색 작업이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되게 하시고 일을 진행하는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자신의 가족처럼 일을 처리했으면 한다. 모든 일은 주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이 가운데서 숨겨진 주님의 뜻을 찾아내야 하겠다.



므낏세(Manasseh)

므낏세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지닌다. 므낏세는 남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이며 그 어머니는 험시바였다. 므낏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됐고 남북조를 통틀어 가장 오랜 재위기간인 55년간이나 통치한 왕이었다. 므낏세는 12세에 왕위에 올랐으나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군신들의 권유와 자문으로 국정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므낏세는 불행하게도 친 앗수르파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앗수르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다. 훌륭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잘못된 신하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이방신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다. 그러므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이나 제단을 다시 세웠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신상을 만들어 우상숭배의 탈선을 범하고 말았다.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되 그 아들을 제물을 삼기도 했다.

이는 종교적인 혼합주의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극도의 배교행위였다. 그뿐 아니라 므낏세의 강포한 행위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로 물들인 잔인한 통치를 낳았다. 결국 예언자들의 예고와 같이 므낏세가 바벨론에 끌려가 사슬에 묶여 옥고를 치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저가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 그토록 탈선한 왕인데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됐고 왕위가 지속되는 은혜를 받았다.

▷ 교훈과 적용 ◁

첫째, 므낏세가 어린 나이에 주변 인물을 잘못 만난 것이 불행이었다.

돌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자.

둘째, 잘못된 통치와 사상은 중간에라도 고쳐야 한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 큰 아픔을 경험해야 했다.

유머

어느 날 맹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렸다.

하나님 : 왜일이나~ 맹구야??

맹 구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 어이구 이 녀석아~ 비행기 태우리 마라. 어지럽다.

맹 구 : 무한 자비로우신 하나님 !

제가 한가지 여쭙 봐도 될까요?

하나님 : 오냐~ 물어보거라!

맹 구 : 하나님! 백만 년이란 세월은 하나님한테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 : 백만 년이라고 해봤자 나한테는 단 1분에 불과하단다.

맹 구 : 역시 스케일이 크시군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쭙 보겠습니다.

백만 달러는 하나님께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 : 백만 달러? 나한테는 토크 한 개에 불과하지~

맹 구 :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 저한테 토크 한 개만 껌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 : 암~~~~ 좋다마다~~ 1분만 기다리거라~~~



◎ 이달의 교회소식

1. 제4회 교회배 족구대회 / 6월 1일 오후2:00
2. 리브가여선교회 헌신예배 / 6월 2일 오후7:30
3. 사라여선교회 헌신예배 / 6월 16일 오후7:30
4. 제직세미나 / 6월 20일 오후7:00
5. 목회탐방 / 6월 24일~27일
6. 찬양예배 / 6월 30일 오후6:00

◎ 공지사항

1. 6월 생활실천표어 / 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보라
2. 6월 신앙서적 / 하나님의 집이 되라
3. 특별새벽기도회 / 6월 3일~8일

● 이달의 교우소식

1. 담임목사 출타 / 교단 실행위원회 - 6월 27일~28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